

◆ 러시아 북방의 원시림과 순록의 길

코미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Коми)



김재명

목 차

I. 종합개관	
II. 상세개관	
1. 역사	
2. 정치	
3. 경제	
4. 사회/문화	
5. 주요인물	
6. 한국과의 관계	

I. 종합개관

1. 일반개황¹⁾

국호	코미 공화국(영어: Komi Republic 러시아어: Республика Коми 코미어: Коми Республика)
수도	식팁카르 (Сыктывка.р.Syktyvkar) (인구: 219,700명 - 2024년 1월 기준)
주요도시	행정중심도시: 식팁카르, 보르쿠타, 우흐타 등
면적	416,800 km ² (북서연방관구의 24.7%, 러시아연방의 2.4%, 한반도 2배)
인구	720,600명(2024년 1월 1일 기준) 도시: 561,100명, 지방: 159,500명
민족구성	러시아인 69.7%, 코미인 22.2%, 우크라이나인 1.9%, 타타르인 0.7%, 벨라루스인 0.5%, 아제르바이잔인 (0.5%) (2021년 기준)
약사	- 1921.8 코미 자치주 - 1936.12 코미 소비에트 자치공화국 - 1992.6 코미공화국 수립 * 공화국 성립일: 1992년 6월 (수도: 식팁카르)
종교	러시아 정교
공용어	러시아어, 코미어
정부형태	공화국
공화국 수반	로스티슬라프 골드스타인 (РОСТИСЛАВ ГОЛЬДШТЕЙН) 2024년 11월 5일 취임
의회	코미공화국 국가 평의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Республики Коми)
연방관구	북서연방관구
경제관구	북부경제관구
주요산업	채유 분야(석유정제, 가스채굴 및 정제, 석탄 채굴), 임업, 관광 산업, 농축산업
지역총생산(GRP)	1조 493억 6500만 루블 (2023 기준)
1인당 GRP	145만 루블 (2023년 기준)

1)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4, 2024

2. 위치

<그림 1> 코미 공화국 지도(출처: 안텍스)



3. 자연환경

코미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나로드나야 산(1,894m)을 포함한 북부 우랄 산맥의 능선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는 티만 산맥과 메젠 및 비체그다 강의 상류유역까지 펼쳐져 있다. 면적은 415,900km² 이고, 남서-북동 거리는 1,275km, 남-북 거리는 785km, 동-서 거리는 695km이다, 시간대는 모스크바 시간대를 사용한다.

네네츠 자치구 (Nenets Autonomous Okrug 북서쪽/북쪽),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YamaloNenets Autonomous Okrug 북동쪽/동쪽), 한티만시 자치구 (Khanty-Mansi Autonomous Okrug 동쪽), 스베르들롭스크 주 (Sverdlovsk Oblast 남동쪽), 페름 크라이 (Perm Krai 남쪽), 코미페르마크 자치구, 키로프 주 (Kirov Oblast 남쪽/남서쪽), 아르한겔스크 주 (Arkhangelsk Oblast 서쪽) 지역을 접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평평하고 단조로운 지형을 이루는 페초라 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다. 삼림이 이 공화국의 70% 이상을 덮고 있다. 코미 공화국의 15%를 차지하고 32,800 km²의 면적을 지닌 북동단 지역은 툰드라 지대로 이끼, 지의류, 키 작은 관목 등이 자라고 있으며, 코미 원시림은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버진 코미 삼림지대는 러시아와 유럽에서 가장 큰 삼림지역이다. 남쪽으로 가면서 발육상태가 나쁜 작은 관목들에서 점차 울창한 타이가, 침엽수림지대로 바뀐다. 습지와 이탄 습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은 대체로 척박한 편이다.

<그림 2> 페초라강(출처: 구글)



주요 강으로는 페초라강(Pjechora-1809km)이 있으며, 코미 공화국과 네네츠자치구 (Nenets Autonomous Okrug)를 흐르는 강이다. 우랄 산맥 동쪽의 우스티일리치 (Ust-Ilych)에서 발원을 해서 바렌츠해(Barents Sea)에 접해있는 페초라 만(Pjechora Bay)으로 흘러 들어간다.

비체그다(Vychegda-1130 km)강은 북우랄 산맥의 서쪽 310km 지점에서 발원하여 코미 공화국과 아르한겔스크 주(Arkhangelsk Oblast)를 흐르고, 비체그다강은 코틀라스 (Kotlas)에 접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비체그다강과 인접한 도시로는 식팁카르 (Syktyvkar)가 있다. 그 외 이주마 (Ižma-531km), 메젠 (Mjezjen`-966km), 시솔라 (Sysola-487km), 우

사 (Ysa-565km), 바슈카 (Vashka-605km), 빔 (Vym`-499km)강 등이 있다. 코미 공화국 내에는 코미 원시림(Virgin Komi Forests)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우랄지방 툰드라 지대에 위치한 면적 3,280,000ha에 달하는 광대한 유럽 북부의 최대 처녀림이다. 1995년에 유네스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습지와 침엽수림이 많아서 여러 동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페초라강을 비롯한 여러 지류의 강이 흐르는 평야지대로 진흙 습지가 많고 여름철 2달 동안만 눈과 언 땅이 녹아 식물이 자란다. 해발이 높고 습도가 낮은 지역에는 서양마가목·서양 까치밥나무 등 낙엽 관목이 우거져 있다. 진흙 습지에서 북부의 서쪽 산기슭까지는 냉대림이 펼쳐져 있다. 이곳은 타이가라고 하는데, 숲이 우거져 목재·펄프공업이 활발하고 사냥도 많이 이루어진다. 남쪽으로는 침엽수림으로 이루어진 검은 타이가와 낙엽 관목림이 펼쳐지며, 계곡에는 전 나무·시베리아전나무·스코틀랜드소나무 숲이 울창하다. 자연환경이 풍부하여 유럽비버·유라시아수달·불곰 등의 포유류 43종, 흰뺨오리·노랑부리큰쇠조·들꿩·가막딱다구리·잣까마귀 등의 조류 204종이 서식한다. 어류로는 참민물공주송어·대서양연어 등 16종이 살고 있다.

4. 기후²⁾

코미 공화국은 대륙성 기후이며, 러시아 북쪽 지역처럼 겨울이 길고 매우 춥다. 반면 여름은 그리 높지 않은 기온에 그 기간도 짧다. 코미 공화국은 엄밀히 말하자면 시베리아는 아니지만 북부 특유의 혹독한 기후, 긴 겨울 등 자연환경은 시베리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코미 공화국의 1월 평균 기온은 남서 지역이 -17도, 북동 지역의 경우는 -26도이다. 7월 평균 기온은 남서 지역의 경우 +15도, 북동 지역은 +12도로 한여름에도 비교적 선선한 편이다. 한 코미 공화국에서도 백야현상을 볼 수 있다. 보통 5월부터 시작되는 백야현상은 6월까지 계속되고 6월 22일은 코미 공화국에서 낮이 가장 긴 날이면서 낮과 밤의 시간이 같은 하지이다 이날 이후부터 점차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이외에도 극야(極夜)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극야현상이란 태양이 24시간 내내 지지 않는 백야와 반대로 태양이 24시간 동안 뜨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³⁾ 코미 공화국의 주로 북쪽 지방으로 예를 들면 최북단 도시인 보르크타(Воркута)에서 이 현상을 볼 수 있다.

2)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p. 25-26.

3) 황진화·엄선화·허소영, 『북극해 활용전략 연구』 (서울기획문화사, 2010), p.31.

5. 국기



<그림 3> 코미 공화국 국기(출처: 구글)

1994년 6월 6일에 채택된 것으로 파랑, 초록, 흰색이 수평으로 그려져 있다. 가로 세로 비율은 2:3이다. 파랑은 하늘, 초록색은 자연과 타이가를, 흰색은 북부 자연의 눈과 순수함을 나타낸다.

6. 국장



<그림 4> 구소련 시절 코미 공화국 문장 <그림 5> 현재 코미 공화국 국가 문장

1994년 6월 6일에 채택 되었으며 빨간색 바탕에 맹금이 묘사되어있다. 맹금 가운데는 여신 얼굴이 그려져 있고, 6마리의 엘크가 여신의 얼굴을 둘러싸고 있다. 새 문양 가운데에 있는 태양의 여신이자 황금의 여신인 ‘자르니 안’으로 코미 신화에서는 생명의 어머니를 상징한다. 자르니 안(Зарни Ань)은 하늘신, 혹은 태양신의 딸로 무지개를 타고 코미 땅에 내려왔다가 그 아름다움에 반해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코미 땅에 남았다고 한다. 코미인들은 자신들이 파르마(타이가)의 아들인 페라(Пера)와 태양신의 딸인 자르니 안이 결혼해 낳은 자식들이라고 믿었다.⁴⁾ 맹금은 태양, 권위, 상위세계를 의미하고 엘크는 권력, 선량함, 아름다움의 의미를 갖고 있다.

4)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28.

II. 상세 개관

1. 역사

코미 민족은 11세기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다. ‘코미’라는 독특한 민족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코미 영토의 남쪽에 흐르는 카마(Kama)강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설과 ‘인간’, ‘인류’를 의미하는 고대 페름어 코샤(КОМ)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다.⁵⁾

민족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한 주장은 현재 코미 영토인 비체그다 강 중류를 중심으로 코미 민족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세기 무렵 옛 코미 영토에 거주하던 종족들은 핀어를 사용했고 사냥이나 어업을 생업으로 삼았으며 이들의 인구 증가와 주변 민족의 교류로 코미 민족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카마 강 중상류 지역을 코미 민족의 기원지라고 보고 있고, 9-10세기 카마 강 상류에 살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비체그다 강으로 진출하여 이 지역의 토착민들과 어울려 살았다는 것도 있다. 이들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8세기부터 시작된 기후 온난화로 카마 강 북부 지역이 거주와 경제활동에 보다 적합해지자 이곳으로 이주해왔다. 즉, 코미 땅보다 남쪽에 살던 농민들이 북으로 이주했다는 것이다. 한편 카마 강에 남은 이들은 코미-페르막인의 선조가 되었다. 코미 땅에 거주하던 종족들은 10-11세기 본격적으로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⁶⁾

12세기부터 이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했고, 1478년에 러시아에 병합되었다. 14세기에 모스크바 공국의 일부가 된 이 지역으로 러시아의 모피동물 사냥꾼들이 모여 들었다. 이들은 분지와 분지를 연결해주는 강과 육로를 통해 우랄 산맥을 가로질러 시베리아로 갔다. 과도한 사냥으로 모피동물의 수가 감소되고, 시베리아로 가는 좀 더 짧고 평탄한 길이 발견되면서 이 지역의 중요성도 줄어들었으나, 17세기에 이르러 러시아 식민지 건설의 중심지로서 우스찌-식솔스크(현재 식탑카르:수도)시가 세워졌으나 약 100년 동안 인구는 변하지 않았고, 18세기에 이 지역에 석유가 발견된 이후 석유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21년 8월 22일 핀우구르어를 사용하는 코미인들을 위한 코미 자치주로 성립되었으나 지금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인이다. 1930년도에 우스찌-식솔스크가 식탑카르로 개칭되었고, 1936년 코미 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이 되었으며, 1992년도에 코미 공화국이 공식화되었다.

5)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43.

6)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p.43-45.

2. 정치

2.1. 행정부

1990년대 초 대통령 체제 수립되기 전까지 공화국 의회는 가장 강한 정치적 힘을 가졌으며, 코미 공화국은 ‘의회내각제’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공화국의 대통령 선거는 러시아 헌법이 제정되고 나서도 뒤늦게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코미 주민들이 대통령제 도입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1994년 공화국 정부는 의회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되었고 이때 180명에 이르던 의원 수는 50명까지 대폭 감소됐다.⁷⁾

1) 대통령

코미공화국의 대통령은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이 된다. 러시아연방 및 코미 공화국 피선거권을 갖는 30세 이상의 러시아 시민이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 선출은 5년마다 하고, 재임이 가능하며 연속 삼선은 금지됐다. 만약 대선에서 한명의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했거나, 취소가 되었을 시 2차 투표를 진행 한다. 2차 투표는 전 대통령 선출 이후 6개월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6 : 코미공화국 대통령 로스티슬라프 에른스토비치 골드스타인>

현재 코미공화국 대통령은 로스티슬라프 골드스타인으로 2024년 11월 5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직무대행 수반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1969년 러시아 셸리자로보에서 태어나, 리아잔 경제법학원에서 행정법과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사할린 지역의 기술직을 시작으로 군 복무를 거쳐 2003년부터 정치에 입문하여, 코미 공화국 주의회 의원, 러시아 하원 의원, 유대인 자치구 연방 상원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2019년 유대인자치구 임시 지사로 임명된 뒤, 2020년 선거에서 82.5%의 압도적 지지로 정식 지사에 당선되었다.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으로, 연방-지역 간 정책 조율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조국공로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⁸⁾

7)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68.

8) https://en.wikipedia.org/wiki/Rostislav_Goldshteyn 검색일: 2025.6.28.)

2) 역대 대통령⁹⁾

<p>1대 대통령</p>	 <p>유리 스피리도노프 (Юрий Алексеевич Спиридонов) 1994.12.01.~2002.0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8년 옴스크 출생 (러시아인) - 스베들롭스크 광업 대학(Свердловский горный институт) 졸업 후 경제학 박사 취득 - 1975년 소련 공산당 입당 - 1990년 코미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상원의회 제 1의장 - 1993년 코미 공화국 상원의회 제 1의장 - 1994년 코미 공화국 초대 대통령
<p>2대 대통령</p>	 <p>블라디미르 토를로포프 (Торлов Владими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2002.01.12.~2010.0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식팁카르에서 출생 (코미인) - 코미 사범대 사회학 박사 - 1990년 코미공화국 최고위원회의 수장으로 선출 - 1993년 코미공화국 사회부 제 1부총리로 임명됨 - 2002년 코미 공화국 2대 대통령
<p>3대 대통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6년 인타에서 출생 - 1991년 모스크바 경제 및 통계 대학교 졸업 - 2010년 1월 대통령에 의해 코미 공화국 수장 임명 - 2014년 직접 선거를 통해 코미 공화국 수장 재선

9)

https://ru.wikipedia.org/wiki/%D0%93%D0%BB%D0%B0%D0%B2%D0%B0_%D0%A0%D0%B5%D1%81%D0%BF%D1%83%D0%B1%D0%BB%D0%B8%D0%BA%D0%B8_%D0%9A%D0%BE%D0%BC%D0%B8 (검색일: 2025.6.28.)



비야체슬라프 가이저(Вячеслав Михайлович Гайзер)
2010.01.15.~2015.09.30.

4대
대통령



세르게이 가플리코프(Сергей А натольевич Гапликов)
2015.09.30.~2020.04.02

- 1970년 비슈케크 출생
- 1996년 바우만 모스크바 국립기술대학교 및 MGIMO 법학 졸업
- 2015년 9월 30일 대통령 임명으로 임시 수반 취임
- 2016년 9월 선거에서 유권자 62.17% 지지로 정식 취임

5대
대통령

블라디미르 우이바(Владимир Викторович Уйба)
2020.04.02.~2024.11.05.

- 1958년 옴스크 출생
- 1982년 스페르들로프스크 국가의대 졸업
- 2012년 1급 연방 국가고문 자격 취득
- 2020년 대통령 임명으로 임시 수반 취임
- 2020년 9월 선거를 통해 공식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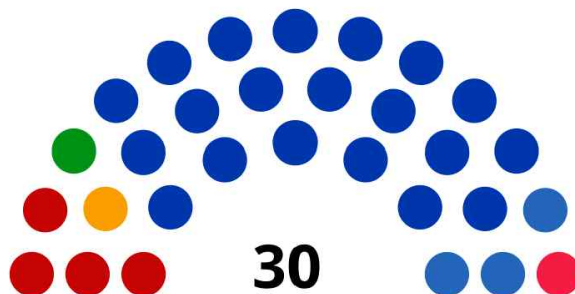


2.2. 입법부

입법부는 코미 공화국 최고평의회(Supreme Council of the Komi Republic)로 대표되며, 이는 지역 내에서 상설 대표기관이자 유일한 입법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최고평의회는 총 3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이 중 15명은 소선거구제(단일 선거구)로 선출되고, 나머지 15명은 선거연합체가 추천한 정당명부에 대한 득표 비율에 따라 단일 전국구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현재의 최고평의회는 2020년 9월에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9월에 만료된다. 행정부는 코미 공화국 수반(Head of the Komi Republic), 코미 공화국 정부(Government of the Komi Republic), 기타 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코미 공화국 정부는 지역 내 상설적이고 최고 수준의 행정기관이다. 코미 공화국 수반은 공화국의 최고위 공직자로서 행정부를 이끌며, 공화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연방 시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선출된 수반이 취임할 때까지는 권한대행이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현행 제7대 의회는 2020년 선거를 통해 구성되어,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이 전체 의석 수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코미 공화국 의석 분포



- 통합러시아당(ЕДИНАЯ РОССИЯ) - 20석
- 러시아공산당(КПРФ) - 4석
- 러시아자유민주당(ЛДПР) - 3석
- 녹색대안(Зелёная альтернатива) - 1석
- 로디나(Родина) - 1석
- 정의러시아당(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 1석

1) 국가의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¹⁰⁾

코미 공화국의 국가평의회(State Council)는 단원제 지방의회로, 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이 중 15명은 단일선거구 소선거구에서, 나머지 15명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현재 제7대 의회는 2020년 9월 선출되어 2025년 9월까지 임기이며, 정당 구성은 통합러시아당 20석, 공산당 4석, 자유민주당 3석, 녹색대안 1석, 조국당 1석, 공정러시아 1석 .

최고 평의회의 의장은 세르게이 우사초프(통합러시아당)로, 2020년 9월 24일 취임했다 . 평의회는 헌법·법률 제정, 지역 예산 승인, 행정부 감독 및 조약 비준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의정 운영은 법률·예산·사회정책·환경·자연자원 등 5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환경 정책의 실효성과 지역 의제 반영을 도모한다.

국가평의회는 지역 거버넌스의 핵심 입법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의례적 절차 중심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적극적 산업 및 환경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7> 코미공화국 7대 의장: 세르게이 우사초프 (Сергей Анатольевич Усачёв)



10) https://en.wikipedia.org/wiki/State_Council_of_the_Komi_Republic(검색일: 2025.6.28.)

2) 연방의회 대표

러시아연방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된다. 상원은 연방회의(Совет Федерации)로 러시아연방의 85개의 연방에서 각각 2명씩 선발이 된다. 러시아 연방의회 상원(Federation Council)에 파견된 코미 공화국의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각각 한 명씩 선임되며, 최근 인적 변화가 있었다. 입법부에서 추천된 엘레나 보리소브나 슈밀로바(Elena Borisovna Shumilova)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2020년 9월 코미 국가평의회로부터 연방의회에 파견되었으나, 2025년 6월에 통합러시아당을 탈당하고 상원의원직에서도 조기 사임하면서 현재 해당 직위는 공석이다. 한편, 행정부 대표로는 코미 공화국 수반의 추천으로 올라 예피 파노바(Olga Yepifanova)가 상원의원으로 임명되어 있으며, 그녀는 러시아 내 온건 중도 성향의 '공정 러시아-진실을 위하여(A Just Russia - For Truth)' 정당 소속으로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2.3. 사법부

코미의 사법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재 재판소로 나뉘어 있다. 코미 공화국의 헌법 재판소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대법원 설립일은 1937년 7월 6일이다. 현재 대법원장은 쉬쉬킨 바체슬라프 알렉산드로비치(Шишкин Вячеслав Александрович)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가브류소프 유리 빅토르비치(Гаврюсов Юрий Викторович)이다.

2.4. 행정구역

2024년 기준, 코미 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4개의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시), 2개의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круга(구), 14개의 Муниципальные районы(군)로 이루어져 있다.¹¹⁾

주요 도시로는 주도 식팁카르 외에도, 우흐타, 우신스크, 보르쿠타, 페초라, 인타 등이 있다.

11) <http://www.council.gov.ru/en/structure/regions/KO/> (검색일: 2025.6.24.)

3. 경제

3.1. 경제개황

코미 공화국은 산업 중심 지역으로, 지역 내 자원, 에너지, 노동력을 활용하여 거의 자급자족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장 핵심 산업은 석유 채굴 및 정제, 가스, 석탄, 전력 등으로 구성된 연료·에너지 복합체로, 총 산업 생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주요 산업 시설로는 몬디 십트브카르 목재공장, 코미텍스, 십트브카르 산업공장, 코미아비아트란스, 루코일-우흐타 정유공장, 보르쿠타우골 등이 있다.

코미 공화국에서 채굴되는 주요 광물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유혈암, 보크사이트, 티타늄 광, 금, 유색 및 희금속 광석, 중정석(바라이트), 석영 원료, 소금, 광물 및 건축 자재 등이다. 약 150개 이상의 석유 및 가스전이 있으며, 주로 티만-페초라 석유가스 지역과 메젠 유망 유전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프리 가스의 절반은 부크틸 석유가스 복합전에서 생산된다. 현재의 탄화수소 매장량의 약 95%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 준비 단계에 있는 70개 광구에 위치해 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18개 광구도 존재한다.

비철금속 자원으로는 티타늄, 망간, 크롬, 바나듐 등이 있으며, 야레가와 피즈마의 티타늄 광맥은 러시아 및 인근 국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약 10개의 보크사이트 광맥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알루미늄 생산과 함께 갈륨, 바나듐, 나이오븀, 희토류 원소, 스칸듐 등의 희수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은 사금 매장지와 금광석 형태로 존재한다.

비금속 광물로는 중정석, 석영, 내화재, 현무암 등이 있으며, 광산 및 화학 원료로는 칼륨 및 암염, 인회석, 사프로펠, 탄산염 등이 있다. 결정 및 준보석으로는 다이아몬드, 석영맥, 압전 석영, 수정, 자수정, 비취, 색채가 있는 칼세도니, 로도나이트, 훈증 석영, 황수정 등이 포함된다. 최대 규모의 중정석 광맥은 호일린스코예 광맥이다. 또한 티만 산맥과 극북 우랄 지역에서는 희금속(나이오븀, 탄탈럼, 몰리브덴, 텅스텐) 및 희토류 원소가 산재되어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10개의 광천 중에는 저미네랄, 황화수소수, 고브롬수, 철분 광천이 주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 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문은 임업으로, 벌목, 제재, 펄프 및 제지, 가수분해 공장을 포함한다. 벌목은 비체그다, 시슬라, 메젠 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임업 지역은 우도르스키, 코이고로드스키, 우스트쿨롭스키, 코르트케로스키, 프릴루스키, 십트브딘스키, 시슬스키 지구이다. 코미 공화국은 러시아 전국 목재 생산량의 약 5%를 담당하며, 생산된 종이 제품의 절반 이상은 80개국 이상으로 수출된다.

농업 생산은 혹독한 기후로 인해 비교적 낮은 편이며, 농작물은 감자, 채소, 사료작물 중심이고, 축산은 유제품 및 육류 생산에 중점을 둔다. 교통 인프라는 철도, 도로, 항공, 파이프라인, 내륙 수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

12) <http://www.council.gov.ru/en/structure/regions/KO/> (검색일: 2025.6.24.)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GRP	696,242	718,138	613,266	869,995	971,635	1,049,365

<표 4> 코미공화국 연간 GRP (단위: 백만 루블)¹³⁾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인당 GRP	884,160	931,130	810,217	1,171,877	1,330,279	1,450,357

<표 5> 코미공화국 1인당 GRP (단위: 루블)¹⁴⁾

2022년 코미 공화국의 지역총생산(GRDP) 구조에서 주요 경제활동은 광물자원 채굴(47.7%), 제조업(9.5%), 국가행정 및 국방·사회보장(6.3%), 운송 및 저장(5.8%) 순이었다. 고정자본 투자의 구성은 자본의 75.0%가 자가자금에서, 25.0%가 외부자금에서 유입되었으며, 공화국 경제에 유입된 총 금융투자는 1조 673억 루블에 달했다.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100.5%를 기록했으며, 세부 산업별로는 광물자원 채굴 99.6%, 제조업 104.3%, 전기·가스·증기·냉방공급 98.0%, 급수·하수·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정화 102.5%를 기록하였다. 자체 생산 제품 및 서비스 기준으로 코미 공화국은 광업 부문에서 러시아 전체 10위(연방구 내 1위), 제조업 부문에서 61위(8위), 전력·가스·증기 부문에서 40위(5위), 급수·하수·폐기물 처리 부문에서 43위(4위)를 차지하였다.

국가 전체에서 코미는 종이, 판지, 펄프, 합판 생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에서는 축산업이 주요 부문이며, 순록 사육도 발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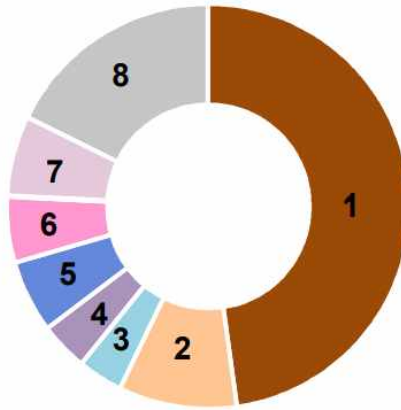
소매유통 총액은 2,083억 루블로, 실질 기준으로 2022년 대비 105.8% 증가하였으며, 인구 1인당 소매유통액 기준으로는 러시아에서 39위를 기록하였다. 소매유통 구조에서 식품(음료 및 담배 포함)은 49.6%, 비식품은 50.4%를 차지하였다. 외식업 총매출은 146억 루블로, 전년 대비 98.1% 수준이었다. 조직들의 순이익(이익 - 손실)은 515억 7,200만 루블로 집계되었다.¹⁵⁾

13) росстат,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6-2023 г г., 2024

14) росстат,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6-2023 гг., 2024

15)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2024, 2024

<표 6> 코미 공화국 지역총생산 구조 (총 생산 대비 %, 2022년)¹⁶⁾



- 1 - 광물 자원 채굴 (47.7%)
- 2 - 제조업 (9.5%)
- 3 - 건설업 (3.7%)
- 4 - 도·소매 무역;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3.8%)
- 5 - 운송 및 저장 (5.8%)
- 6 - 부동산 거래 활동 (5.4%)
- 7 - 국가 행정 및 군사 안보 보장; 사회 보장 (6.3%)
- 8 - 기타 경제 활동 (17.8%)

현재 코미공화국은 북서연방관구 지역 중 석유·가스 채굴, 석탄 채굴, 부직포 산업, 목재산업, 제지산업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⁷⁾ <표 6>을 통해서 코미 공화국 지역 총 생산 구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광물 채굴업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부문이다.

3.2. 주요 산업

코미 공화국의 산업은 풍부한 산림자원, 페초라 강 유역의 보르쿠타(Vorkuta)·인타(Inta) 지역에서 나는 석탄, 우신스크(Usinsk)·보제이(Vozjei)·우흐타(Ukhta) 지역의 석유, 북틸의 천연 가스 등의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임산자원을 이용해서 베니어, 조립식 주택, 바지선, 하향선 등이 생산된다. 1940년대 초에 코틀라스(Kotlas)와 보르쿠타(Vorkuta) 를 잇는 페초라 철도가 부설되면서 광업이 주요산업으로 발전했다. 그 밖에 화학공업, 동력기계공업, 기계 조립업, 금속세공업, 경공업, 식품가공업 등의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연방의 북쪽에 자리 잡은 지리적 조건과 토양이 척박한 관계로 농업 발전은 저조하다. 남쪽 강 유

16)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2024, 2024

17)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88-89.

역들이 소규모나마 경작지로 개발되어 호밀·감자·귀리·보리를 비롯한 채소류가 재배된다. 소와 순록이 주종을 이루는 가축사육이 활발하며, 산림지역에서는 다람쥐·북극여우와 같은 모피동물 사냥이 보편화되어 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많지만 1년에 180~220일은 결빙이 되고, 그 밖의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식탑카르까지 지선으로 연결되는 페초라 철도와 목재 수송용의 여러 협궤철도 지선이 있다. 1980년대 초 이후 페초라 철도와 우신스크 유전지대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진행되었다.

1) 석유

석유 주요산지는 우신스크(Usinsk), 보제이스크(Vozjejsk), 베르흐네 보제이스크(Vjerkhnje Vozjejsk), 야레가(Yarega) 4곳이 있다. 2011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2012년도 석유 생산량은 137만 톤이다.

<그림 8> 코미공화국 연간 석유 생산량(단위: 백만 톤)



채유를 하는 회사는 ‘루코일-코미(ООО ЛУКОЙЛ-Коми)’가 탐사, 건설, 탄화수소 개발을 하고, ‘북부 석유회사(ООО РН - Северная нефть)’는 티만-페초라 석유와 가스 및 탄화수소 퇴적물 탐사를 하며, ‘예니세이(ООО Енисей)’도 있다.¹⁸⁾

2) 석유화학

<표 7> 석유 정제 종류

종류	2010	2011	2012
정제되는 석유(단위: 톤)	417만	517만	515만
자동차용 연료 생산량 증가율 (% 전년대비)	109,7	106,8	76,7
디젤 연료(단위: 톤)	109만	142만	150만
중유 생산량 증가율 (% 전년대비)	143,4	154,8	123,1

석유정제에 종사하는 기업은 ‘북부 석유회사(РН-Северная нефть)’, ‘루코일-우흐타 석

18) “Добыча нефти, включая газовый конденсат Республики Коми”, <http://rkomispb.ru/o-respublike2/ekonomika-i-promyshlennost/promyshlennost-2.html> (검색일: 2015.05.16.)

유정제(Лукойл - Ухтанефтепереработка)', '에니세이(ООО Енисей)'가 있다. 1년에 정제되는 석유는 210만 톤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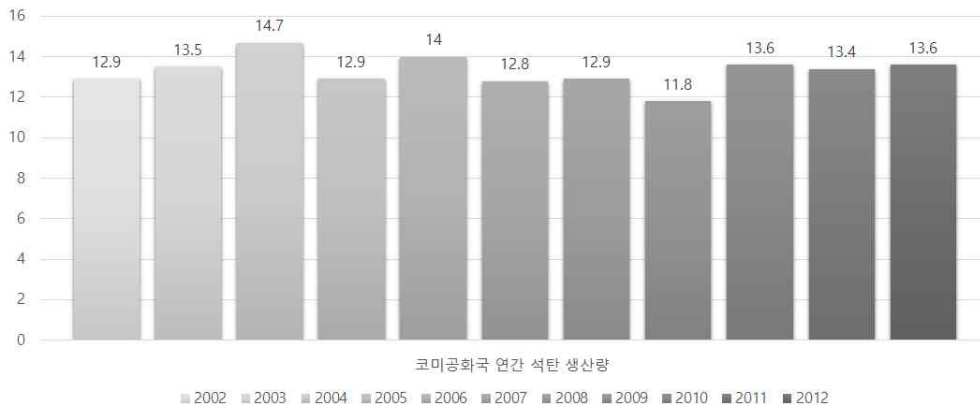
3) 가스 채굴 및 정제

<그림 9> 코미공화국 연간 가스 생산량 (단위: 10억 m³)



4) 석탄 채굴

<그림 10> 코미공화국 연간 석탄 생산량 (단위: 백만 톤)



코미 공화국의 페초라시(Pechora)에 있는 광산은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산이다. 채굴의 석탄의 7.5%를 캐내고 있다. 2,420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페초라에 주요 광산은 30개가 넘으며 현재에는 바르쿠스코예(Vorkutsskje), 보르가쇼르스코예(Vorgashorskoje), 인틴스코예(Intinskoje)에서 석탄과 코크스(해탄)을 채굴하고 있다. 2012년 석탄 채굴량은 2011년 대비 약 2% 증가한 1,360만 톤이다. '보르쿠타우골(OAO В оркутауголь)'이 주요 석탄 생산 회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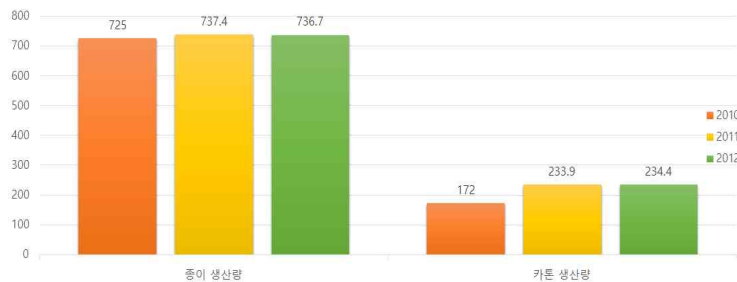
5) 임업

코미공화국은 러시아 내에서 임업이 가장 발달된 공화국이다. 코미공화국 주요 산업들 중 목재산업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산림의 3.5%, 유럽-러시아 산림지역의 50%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셀룰로이드 종이회사는 몬디-식탑카르사이다. 이 회사의 생산품(종이, 골판지, 신문지 등) 41%를 수출을 하고 있다. 공화국 내 임업은 목재공급, 목재가공, 제지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제재업, 건축용 자재 생산, 합판 제작 등이 목재가공업의 범주에 들어간다. 제지업은 종이 및 카톤지¹⁹⁾, 휴지 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탑카르에 펄프와 제지산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이미 1926년 이곳에 대규모 식탑카르 목재가공 단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단지의 설립으로 인하여 원활한 목재 공급이 가능해졌다.²⁰⁾

주요 채벌 장소는 프릴우스키(Прилузский) 22.3%, 우스쨌-쿨롬스키(Усть-Куломский) 18.9%, 시솔스키(Сысольский) 10.3%, 식탑진스키(Сыктывдинский) 9.7%, 코이고라드스키(Койгородский) 9.4%, 우도르스키(Удорский) 8.4%, 코르케라스키(Корткеросский) 5.8%를 차지한다. 임업 분야에서의 기업들에는 ‘몬디 식탑카르 LPK(ОАО Монди Сыктывкарский ЛПК)’, ‘식탑카르 티슈 그룹(ООО Сыктывкар Тисью Групп)’, ‘LPK 식탑카르 LDK(ОАО ЛПК Сыктывкарский ЛДК)’, ‘식탑카르 합판 공장(ООО Сыктывкарский фанерный завод)’, ‘루자레스(ООО Лузалес)’, ‘공장 DVP(ООО Завод ДВП)’, ‘세브레스필(ООО СевЛесПил)’, ‘제샤르트 합판 콤비나트(ЗАО Жешартский фанерный комбинат)’, ‘코미레스비즈니스(ООО Комилесбизнес)’, ‘레스콤(ЗАО Леском)’, ‘구드빌(ООО Гудвилл)’, ‘페초라에네르고리수르스(ООО ПечораЭнергоРесурс)’ 등이 있다.²¹⁾

이 기업들 중에서 ‘몬디 식탑카르 LPK’가 채벌의 비중이 43.9%를 차지한다. 펄프는 연간 약 65만 9천 톤을 생산하고, 판지 및 종이는 92만 톤을 생산한다. 그리고 러시아 시장의 옵셋용지의 40% 이상, 55-60%를 판지로 생산한다. 또한, 생산된 종이의 절반은 80개국의 전역으로 수출이 된다.²²⁾

<그림 11> 코미 공화국 연간 종이 및 카톤 생산량 (단위: 천 톤)



19) 카톤지(carton)란, 판지 등을 성형한 용기의 총칭으로, 지기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 등을 제외하고 주로 판지를 재료로 한 상자, 트레이 등을 말한다.

20)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p.96-97.

21) <http://rkomispb.ru/o-respublike2/ekonomika-i-promyshlennost/promyshlennost-2.html> (검색일: 2015.05.16.)

22) http://invest.rkomi.ru/ru/page/o_respublike_komi.ekonomika/ (검색일: 2015.05.16.)

코미 공화국의 연간 종이 생산량은 2012년에 2011년 대비 0.14% 감소하였고, 카톤 생산량은 2011년에 비해서 0.2% 증가하였다.

6) 통신

통신의 모든 분야 (가정용 전화, 팩스, 핸드폰, 우편, 위성통신 분야)가 발달되어 있다. 공화국에는 엠테에스(МТС), 메가폰(Мегафон), 빌라인(Билайн) 세 개의 이동 통신사가 있고, 30개가 넘는 통신회사들이 있지만 북서 텔레콤(Severo-Zapadnyi Telecom), 코미통신(Cvjaz` Komi) 두 회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3.3. 경제 관련 최근 이슈

Shell사, 러시아 툰드라 지역에 관심 (2014.10.22.)²³⁾

Shell사는 러시아의 코미공화국에 위치한 Inta지역에서 석유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Inta 지역은 현재 Kochmesskoe 산지에서 석유회사인 Soyuz사만이 개발 작업을 하고 있으며, Shell사의 석유개발을 반기고 있다. Shell사는 Inta지역의 광물 매장량이 Severo-Vorkuta 지역 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코미공화국은 러시아의 북서지역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3년 코미공화국의 석유생산량은 1,380만 톤이었다.

²³⁾<http://barentsobserver.com/ru/energiya/2014/10/shell-proyavlyayet-interes-k-rossiyskoy-tundre-22-10>
(검색일:2015.05.16.)

4. 사회/문화

4.1. 수도

식팁카르(러시아어: Сы́ктывкар, 코미어: Сыктывкар)는 코미 공화국의 수도이고, 인구는 24만 5,083명(2018년 기준)이다. 모스크바로부터 1,410km 떨어져 있다. 시솔라강(Sysola River)에 면해 있고 시솔라강이 비체그다강(Vychegda River)에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그림 12> Герб Сыктывкара



<그림 13> Флаг Сыктывкара



1780년 예카제리나 2세의 칙령으로 수도가 되었으며, 원래는 우스티-시솔스크(Ust-Sysolsk)로 불렸다. 1900년대에는 우스티-시솔스크는 북 러시아 지역에서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이후 1930년에 도시 건설 150주년을 맞이하여 ‘식팁카르’이라고 개칭되었다. ‘식팁카르’라는 뜻은 ‘식티브’는 코미어로 강을 뜻하고, “카르”는 도시라는 뜻이다. 즉, “시솔라 강 위에 도시” 라는 뜻이다.

식팁카르는 코미 민족의 중심지이지만,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는 코미인의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1930년대 스탈린의 산업화 정책으로 코미 북부에 위치한 탄광이 개발되면서 러시아 기술자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 이때, 러시아인의 비율은 점점 높아졌다. 식팁카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이 이 도시인구의 약 60%라고 한다. 나머지 10%는 기타 민족이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카프카즈, 그중에서도 특히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이민자들이 많다고 한다.²⁴⁾

1972년에 설립된 식팁카르 대학교를 비롯하여, 교육대학교, 러시아과학아카데미지부가 있다. 많은 극장과 박물관 등이 있고, 식팁카르 국제공항이 있다. 1960년대 이후 도시 경제를 제재업에 주력하여 제재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종이·펄프·경질섬유관·합판·가구 등을 생산했다. 오늘날에는 조선업·선박수리업·피혁업·직물업·식품가공업 등도 활발하다.

24)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p.182-183.

4.2. 인구 및 민족 구성²⁵⁾

코미공화국 총인구는 2024년 1월 기준 720,600명이며, 561,100명은 도시에, 159,500명은 농촌에 거주한다. 민족 구성은 2021년 기준 러시아인(69.7%), 코미인(22.2%), 우크라이나인(1.9%), 타타르인(0.7%), 아제르바이잔인(0.5%), 벨로루시인(0.5%)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²⁶⁾

<표 9> 코미 공화국 출생률과 사망률 (인구 천 명당 출생 및 사망 수)

연도	출생률	사망률
2005	11.3	15.5
2010	12.9	13.1
2015	14.2	12.8
2020	10.0	14.6
2021	9.7	17.6
2022	8.7	14.3
2023	8.7	13.4

<표 10> 인구 자연증가율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убыль (-) населения(%)	-4.2	-0.2	1.6	-4.6	-7.9	-5.6	-4.7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코미 공화국의 출생률과 사망률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며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지속되었다. 2005년 출생률은 11.3명이었고, 사망률은 15.5명으로 이미 자연 인구 감소가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출생률은 2015년에 14.2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 시기 사망률은 12.8명으로 출생률이 사망률을 상회하는 유일한 시기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8.7명으로 떨어졌으며, 반대로 사망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17.6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2년에는 사망률이 14.3명으로 다소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출생률을 크게 상회하여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 인구 감소는 지역의 인구 구조 고령화, 청년 유출, 의료 접근성 등의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연결되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5)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2024, 2024

4.3. 문화

1) 의식주

<그림 15> 코미 여성 전통 의상



<그림 16> 유르나(юрна)



가. 의상

코미 전통의상에서는 모피나 가죽이 많이 사용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나 코미공화국의 기온은 상당히 낮고 겨울인 약 8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복장은 기후와 그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특히나 이즈마 지역에서는 순록을 키우는데 그들의 삶은 전부 순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들은 순록의 가죽으로 집을 짓고 그들의 옷을 만든다. 남성의 옷은 앞가슴 부분은 비스듬히 트인 루바하(Рубаха)와 바지로 구성된다. 여기에 긴 장화나 무늬가 있는 긴 양말을 신는다.²⁷⁾ 전통적인 코미 여성의 복장은 주로 사라판(Сарафан)이라는 긴 드레스로 구성이 되어있다. 겨울에는 보통 가죽 부츠 또는 펠트로 만든 발렌키라는 신발을신고 양털로 만든 외투를 입는다.

아르한겔스크의 입술이라는 뜻을 가진 유르나(юрна)는 신부의 머리 장식이다. 진주 구슬, 단추, 그리고 자수로 붉은 천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이러한 유르나는 결혼식 전에 이틀 동안 착용하는데 이는 악마로부터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7)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139.

나. 식

<그림 9> 올라디



<그림 10> 산가



<그림 17> 순록고기



<그림 18> 생선파이



코미민족은 항상 숲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은 다양한 야채로 구성되어 있다. 자작나무 껍질을 더해서 특유의 맛과 향을 주는 것을 좋아했으며 주요 재료는 베리 종류들, 버섯, 낚시를 통한 생선 등이 있다.

코미인들은 러시아인들처럼 애피타이저, 음식, 후식을 세 번에 걸쳐 차례대로 먹는다. 주로 러시아 식단과 유사한 점이 많아 보이지만 코미 음식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요소들도 있다. 빵을 주식으로 삼는 러시아인들과는 달리, 코미인들은 빵을 자주 구워 먹지 않았으며, 빵 반죽에 엄청난 양의 잡곡이나 마가목 껍질, 혹은 나뭇잎, 풀, 짚 부스러기 등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재료를 넣어 빵을 구웠다. 대신 코미인들은 블린(Блин), 올라디(Ол яды), 파이, 튀김과자(산가, Шаньга) 등 밀가루 반죽을 구워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다. 또한 대부분의 코미인들은 닭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반죽에 달걀이 안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²⁸⁾ 또한, 생선이 거의 모든 코미 음식에 들어간다. 주로 생선 수프 우하(Уха)를 끓여 먹고 생선 파이에 들어가는 속으로도 이용이 된다.

28)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142.

다. 주²⁹⁾

코미의 전통가옥은 목조 가옥이다. 고대 코미인들은 별다른 도시계획이나 거리 조성 계획 없이 강 주위에 집을 지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야 코미 전역에 도시계획이 확장되었다.

전통가옥의 외관은 별다른 장식 없이 지어지고, 통나무 끝 부분은 러시아 전통가옥인 이즈바(Изб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 말, 순록의 머리 모양으로 장식된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구역과 경제활동을 하는 구역이 하나의 형태로 합쳐진 구조이다. 또한, 코미인들은 주거 공간의 아래에 보통 지하실을 만들어 놓는데 이곳을 저장소로 이용한다. 또한, 순록의 형상을 문턱, 창문, 성소, 창고 등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코미인들의 주거 특징이다.

<그림 19> 코미식 이즈바(Изба)



<그림 20> 코미식 이즈바 내부(Изба)



29)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p. 143-145.

2) 코미어

코미 공화국의 언어인 코미어는 핀-우고르어파의 피노페르마크어족에 속해 있다. 코미어는 몇 개의 방언이 있는데 이중 코미지리안어가 알려져 있고, 코미 공화국과 페름 크라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코미-페르마크어는 페름 변강으로 통합된 코미페르마크 자치구에서 사용되었다. 코미어는 역사의 표기가 흥미롭고 핀어족에 속해 있다. 최초의 기록 작품은 14세기에 스테판 호라프가, 벨리 키우스투크에서 쓴 아부르에서 나타나 있다. 스테판은 코미계통의 성으로 바꿨다. 문자는 그리스 문자나 키릴 문자로 쓰였으며, 16세기에 러시아의 키릴 문자로 대체되었다. 1920년대에는 키릴 문자에서 유래된 몰롯초프 알파벳이 사용되었고, 1930년대에 잠시 라틴 문자로 변경되었다가 1940년대부터는 키릴 문자로 바뀌었다. 1940년대에는 키릴 문자에 일부 독특한 문자를 포함시켰다.

<그림 21> 코미어(출처: 안텍스)

А а	Б б	В в	Г г	Д д	Е е	Ё ё
Ж ж	З з	И и	І і	Й й	К к	Л л
М м	Н н	О о	Ӗ ӧ	П п	Р р	С с
Т т	У у	Ф ф	Х х	Ц ц	Ч ч	Ш ш
Щ щ	Ъ ъ	Ы ы	Ь ь	Э э	Ю ю	Я я

3) 특산품

가. 순록사육업³⁰⁾

코미공화국의 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코미-이제메츠인들은 주로 순록사육업에 종사했다. 본래 남쪽에 살던 이들은 툰드라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쪽으로 이주하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경제활동을 그대로 이어오기가 힘들었다. 17세기 중반 무렵 코미인들은 이웃민족인 네네츠인들로부터 순록사육업을 받아들였다.

네네츠인들에게서 순록사육을 받아들지만, 이제메츠인들은 타이가 순록사육의 요소들도 받아들이는 등 자신만의 순록사육법을 발전시켰다. 툰드라 사육은 네네츠인들이 주도한 사육 방식으로 1년 내내 순록과 함께 유목을 한다. 반 유목 형태인 타이가 사육은 서시베리아에서 발전한 방법으로 순록을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보는 것이 특징이다.

30) 김혜진, “코미-이제메츠 문화적 독자성의 기반: 순록사육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연구』 제 22권 제 1-1호, pp.139-143.

순록사육의 상업화를 들 수 있다. 이 점이 다른 순록사육 민족과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이며, 방목, 사육에 있어 또 다른 특징들을 낳았다. 순록 무리와 함께 유목을 하며 돌아다녔던 타민족들이 순록을 이동수단, 음식, 옷과 유목용 텐트의 재료 등 자급자족을 위해 순록을 사육했다면, 이제메츠인들은 순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순록가죽, 고기, 털 등-을 교역의 대상, 즉 '하나의 상품'으로 보았다. 특히 이제메츠인들이 만든 순록의 다름가죽(замши), 혹은 새미가죽은 순록의 가죽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든 것으로 이들의 특산물이었다. 일부 이제메츠인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전염병과 방목지 부족으로 인근의 다른 순록사육 지역(한티-만시 자치구, 야말-네네츠 자치구)로 이주를 했는데, 이주한 지역에서도 가죽을 가공하는 시설을 만들 정도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순록은 또한 '투추(тучу)'라는 이제메츠인들만의 독특한 가방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투추는 골무나 실 같은 것을 담아두는 것으로 순록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반타원형의 가방이다.

<그림 22> 투추(тучу)



4.4. 관광지

1) 만푸푸네르(Манпупунер, Маньпупунер)

코미 공화국의 접근하기 힘든 북우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미공화국의 지역에서 유네스코로 지정된 Virgin 숲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만푸푸네르가 있다. 만푸푸네르는 '7인의 강한 돌기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가장 큰 돌기둥의 높이가 약 80m 이고, 가장 작은 것이 30m라고 한다. 이러한 거대한 석상은 바위의 선택적 풍화작용을 통해 생성됐다. 만푸푸네르 고원은 인기 있는 스포츠 관광지다. 며칠 동안 걸어서 갈 수도 있고 헬리콥터로 갈 수도 있다.³¹⁾

31) http://russiafocus.co.kr/travel/2014/03/01/10_43963.html(검색일자: 2015.5.15.)

<그림 26> 만푸푸네르(Маньпупунер)



4.5. 예술

코미족의 예술은 현대 문화에서 독창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코미 공화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를 이용한 예술이 발달했다. 나무에 장식을 한다든지, 나무 공예가 특히 발달했다. 코미 공화국에서 20개가 넘는 박물관들이 있다. 그중 '국립중앙 박물관'이 큰 규모를 자랑한다. 역사관, 자연관, 민족관, 문학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주요 박물관 중 '국립 미술관'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곳은 17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7천 점이 넘는 그림들과 조각들, 장식품 등 러시아 및 해외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코미 공화국에서 5개의 극장이 있다. 그 중 가장 역사가 깊은 것은 빅토르 사빈 민족우호아카데미 극장이다. 빅토르 사빈 극장은 1930년에 설립이 되었고, 민족작품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세계 고전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³²⁾ 가장 규모가 큰 극장은 국립 오페라 발레극장으로 식팁카르에 위치해 있다. 코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스키, 하키, 농구, 수영을 꼽을 수 있다. 세계스키대회에서 우승을 한 선수도 여럿 배출했다. 스케이트부분에서도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많다. 하키 러시아 리그에서 식팁카르 대표 팀이 우승을 했고, 식팁카르 여성 농구팀은 러시아 슈퍼리그에서 우승을 했다.\

32)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p. 164-165.

5. 주요 인물

5.1. 발레리 레온티예프(Валерий Яковлевич Леонтьев)

<그림 23> 발레리 레온티예프



<그림 24> 퍼포먼스 중인 발레리 레온티예프



발레리 레온티예프는 1949년 3월 19일 출생으로 코미 공화국 우스티-우사(Усть-Уса) 출신이다. 그는 소비에트 그리고 1980년대 초 러시아 팝 가수로 전성기를 맞았다. 1996년 그는 '러시아의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그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하나이다. 그의 수십 년의 가수 생활 동안에 30개 이상의 앨범을 출시했고 수백만장의 앨범을 팔았다. 1991년 세계 뮤직 어워드(the World Music Award)에서 '소련 올해의 앨범 베스트 셀러'로 처음으로 소비에트-러시아에서 상을 받는 아티스트가 되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발레리 레온티예프를 러시아의 'Megastar' 또는 '전설'이라고 칭했다. 그는 1971년 '보르쿠타(Воркута)' 지역 '노래-71(Песня-71)'이라는 대회에서 처음으로 가수의 인생을 시작했다. 당시 '노래-71'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 2011년은 그가 가수를 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의 무대는 화려한 의상과 퍼포먼스로 유명하며, 마르가리타(Маргарита), 산타바바라(САНТА БАРБАРА), 흑해의 보물(Сокровища Чёрного моря) 등의 노래로 유명하다.

5.2. 바실리 파블로비치 로체프(Васілій Пáвлович Рочев)



<그림 25> 바실리 파블로비치 로체프(출처: 구글)

1951년 12월 22일 출생으로 코미공화국 출신 소련 및 러시아 크로스컨트리 스키선수이다. 그는 소련 대표로 올림픽 대회를 비롯하여 많은 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많은 선수이다. 1976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과 1980년 러시아 모스크바 동계올림픽에 2번 출전한 선수로서 1976년에는 우승을 하여 금메달을 획득했고, 1980년에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외에 세계대회에서 취득한 메달을 보자면 올림픽 대회를 포함하여 1개의 금메달, 2개의 은메달, 그리고 2개의 동메달이다.

당시 소련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는 12개의 금메달, 8개의 은메달, 그리고 5개의 동메달을 수상했다. 현재는 코미공화국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로 있다.

6. 한국과의 관계

6.1 주요 인사 교류

<표 11> 한국과 코미공화국 간의 주요 인사교류

2006.08.21.~08.23	식팁카르 최재근 총영사 방문 → 코미공화국 수립 85주년 행사 참석
2007.12.12.~12.14	욱타 최재근 총영사 방문 → 욱타 국립공업대학교 CKLC(한국문화센터) 개설 기념식 및 현지 기업인 미팅
2008.01.22	코미공화국의 블라디미르 토를로포프(Vladimir Torlopov) 前 대통령과 산업에너지부 장관의 친서 전달.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게 양국의 경제협력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외국 자본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 전달) → 구체적인 자원 개발 프로젝트로는 우도르 셀룰로오스 제지 콤비나트와 트로이즈크 페초르 셀룰로오스 판지 콤비나트, 세레고보 압염 산지의 소금공장 ‘엑스트라’ 건설 프로젝트 등 언급 ³³⁾
2011.02.25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한국대사관 이석배 총영사(現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과 부대통령인 알렉산드르 부로프(Александр Буров)와 회담을 가졌다. 코미 공화국 측은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한 프로젝트로 ‘벨코무르(Белкомур)’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³⁴⁾

2014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표단이 공화국의 대체 에너지와 녹색 기술에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 식팁카르를 방문했다. 대한민국 총영사 김태훈과 이태훈 총무 그리고 코미 공화국 정부 니콜라이 게라시모프 부총재의 주도 하에 회의가 진행되었다.

부총리는 한국이 큰 잠재력을 지닌 코미 공화국의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구두 계약이 실제 프로젝트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하며 공화국이 투자자들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인 대표단은 녹색 기술 분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매년 생산 과정에서 대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화국의 목공 업체에서 발생하는 최대 2백만 톤의 목재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트로이즈코-페초라 지역에 바이오 에탄올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와 공화국 내 우도라 지구의 목공 단지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33) “코미공화국 투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227001010> (검색일: 2015.05.17.)

34) “코미공화국 벨코무르,” <http://www.rkomi.ru/news/7654> (검색일: 2015.05.17.)

2018년 7월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된 INNOPROM-2018 포럼에서 세르게이 가플리코프 코미 공화국 수반은 코트라 부회장과 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지역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농업 혁신 및 현대 목재 가공 기술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어 2018년 10월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 의장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의 방한 시 코미 공화국 수반 카플리코프도 대표단의 일원으로 함께했다. 공식 방문 중에는 한국의 비즈니스 및 학계 대표자들과의 만남과 공화국 및 국회의 지도력과의 협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2. 벨코무르

벨코무르는 우랄산맥과 시베리아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짧은 경로이다.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북유럽의 항구로의 길을 줄일 수도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러시아의 북서쪽의 인구 밀집 지역과 기업을 일 년 내내 연결하기 위함이다.



<그림 27> 벨코무르(Белкомур)

대표적인 철도연결 프로젝트 ‘2020년까지 러시아 북극권 발전 국가프로젝트 - 벨코무르’ (벨코무르 프로젝트)는 아직 미완된 카르포고리-벤딩가(215km), 시크티브카르-가이니-솔리캄스크(590km)의 2구역의 철도를 연결시킨다는 계획으로, 이는 러시아 북서쪽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르한겔스크 항을 확대 및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류이동을 백해로 뺀 바렌츠 해로 목재, 석유, 석탄 등의 손쉬운 운송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³⁵⁾

6.3. 한국기업 활동 현황

현재까지 코미와 한국과의 관계가 조사된 것은 경제 분야 협력이 대다수이다. 그 중에서도 코미 공화국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한국기업들과의 교류가 주를 이룬다. 주요 경제 협력 관계로는 코미 공화국과 자원개발을 포함한 목재, 삼림가공, 채광 및 기타 경제 영역에 대한 협력동의서 체결 요청을 한 디지털디바이스, 엘앤피아너스(예전 디지털디바이스)가 자회사

35) “벨코무르,” <http://cafe.naver.com/siberiaman/630> (검색일자: 2015.05.17.)

인 자오 웨스트 오일(Zao West Oil)이 러시아 코미공화국 진유社(DINYU)와 원유공급을 위한 집유 계약을 체결, 프라임 개발과 함께 러시아 연방 내 석유개발전문업체인 웨스트 오일(ZAO WEST OIL)의 지분 49%를 인수한 프라임 엔터테인먼트, 러시아의 유전개발업체 (가스석유 유전지 개발, 탐사 및 채굴 등 석유관련 업무)인 ZAO Chedty Neft에 133억 원을 투자, 지분 19.9%를 확보하게 된 한신 DNP 등이 있다.

또 다른 한국 투자회사인 '루코텍'은 2009년 코미 공화국을 방문하여 세이딘 석탄산지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다. '루코텍'은 러시아에서 이미 10년 이상 비즈니스를 해 온 회사로 레닌그라드 주와 툴라 주에서 두 개의 대규모 투자 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9월 러시아 북서연방관구 내 코미 공화국 대표부와 코미 공화국의 '천연자원 및 에너지 자원 채굴과 사용'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³⁶⁾

6.4. 한국 투자에 있어서 제안

우리나라의 현재 에너지 자립도는 4%도 되지 못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석탄을 제외하고는 매장된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경제는 국제 유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도 에너지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그중에서도 5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는데 중동, 미국 등에서 벗어나 오일 시장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여전히 개발되지 않은 유전들이 많은 러시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코미 공화국에서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솔리캅스크-가이니-식탑카르-카르포고리-아르한겔스크》간 철도노선 구축(《벨코무르》 프로젝트), 《연간 65만 톤 광석 채굴·가공을 위한 야르겐스크 광업화학단지》, 《코미 공화국 트로이츠크-페초르스크 지역 내 목재산업단지 건설》, 세이딘 열석탄 매장지 상업적 개발로 총 4개가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함으로써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코미 공화국과 경제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6)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 169.

< 참 고 문 헌 >

- 참고논문 및 책

김혜진. 『원시림 속 부상하는 산업기지, 코미공화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김혜진. “코미-이제메즈 문화적 독자성의 기반: 순록사육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연구』 제 22권 제 1-1호

황진희·엄선희·허소영. 『북극해 활용전략 연구』 (서울기획문화사, 2010).

- 참고 사이트

http://russiafocus.co.kr/travel/2014/03/01/10_43963.html(검색일자: 2015.5.15.)

http://rkomi.ru/left/deput_senat/gosduma/(검색일: 2015.05.16.)

<http://rkomispb.ru/o-respublike2/ekonomika-i-promyshlennost/promyshlennost-2.html>
(검색일: 2015.05.16.)

http://invest.rkomi.ru/ru/page/o_respublike_komi.ekonomika/(검색일: 2015.05.16.)

<http://barentsobserver.com/ru/energiya/2014/10/shell-proyavlyayet-interes-k-rossiyskoy-tundre-22-10>(검색일:2015.05.1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227001010>(검색일: 2015.05.17.)

<http://www.rkomi.ru/news/7654>(검색일: 2015.05.17.)

<http://www.slideboom.com/presentations/71329/The-Komi-Republic,-Russia>(검색일: 2015.05.17.)

http://komi.gks.ru/wps/wcm/connect/rosstat_ts/komi/ru/statistics/employment/(검색일: 2015.05.17.)

http://rkomi.ru/left/deput_senat/gosduma/ponev/(검색일: 2015.05.17.)